그것과 보물

사람이 기생충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궁극적으로 알려고 한다면 배를 째고 창자 속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천만다행하게도 대변에 그 증거(충란이나 애벌레)가 섞여 나오므로 번거로운 큰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대변검사만 잘하면 쉽게 진단을 붙일 수 있으니 '똥'은 얼마나 고마운 물건인가!

이순형
한국건강관리협회 회장

• 서울대 의과대학 및 대학원(의학박사)
•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및 학장
• 대한 기생충학회 회장
• 한국의과대학장 협의회 회장
• 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 서훈 : 국민훈장 동백장, 홍조근정훈장

기생충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은 사람들이 제일 더럽다고 생각하는 '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회충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주요 인체기생충들이 사람의 장내에 기생하면서 그들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충란(알)이나 애벌레를 대변으로 배출하기 때문이고, 또 사람이 기생충에 감염되는 것도 이런 대변으로 오염된 음식물을 먹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생충에 걸린 사람들은 똥을 먹은 사람이라 하여도 틀린 말이 아니다. 더구나 사람이 기생충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궁극적으로 알려고 한다면 배를 째고 창자 속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천만다행하게도 대변에 그 증거(충란이나 애벌레)가 섞여 나오므로 번거로운 큰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대변검사만 잘하면 쉽게 진단을 붙일 수 있으니 '똥'은 얼마나 고마운 물건인가!

필자에게 기생충학을 전수하신 은사께서는 외모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깨끗한 선비로 후학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셨다. 그런데 그 은사님이 학장직을 맡았을 당시 가까이서 은사님을 보좌하던 선생님 한 분이 불평을 하시는 것이었다. 사연인 즉 은사님께서 식탁에서도 기생충 얘기를 자주 하시는 바람에 당신(기생충학 전공이 아닌 내과학 전공)은 비위가 상해 식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기생충학을 전공하는 학자들로서는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게 되는 모양이다. 따지고 보면 사람은 누구나 뱃속에 '그것(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잘 배출되어야 건강한 것으로 여기는 처지에, 또 '그것'을 더럽다고 하거나 피하는 것을 보면 가소롭다고 하겠으나 다른 한 편으로 '그것'이 깨끗하고 향기로운 것이 아님은 틀림이 없다. 그러기에 '그것'을 이용하여 기생충병의 진단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하기도 한 것이리라.

몇 년 전 한 장년 남자가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였다. 이 사람은 설사 때문에 시골과 서울의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거치면서 내시경, 직장경 등을 비롯한 온갖 검사는 다 받았으나 설사병의 원인을 찾지는 못하였고, 그 대신 병원비로 집 한 채를 날렸으며 84kg이던 우람한 체중이 딱 반(42kg)으로 줄어든 상태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설사의 원인을 알고나 죽겠다고 배를 째는 장생검까지 자청하였다. 그런데 그 장 조직에서 마침내 장모세선충이라는 아주 작은 기생충의 단면을 찾아낸 것이다. 이 기생충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록되는 것이기에 대변검사를 실시하여 확진을 하였다. 본시 이 기생충도 충란을 대변으로 배출하는 것이므로 어떤 병원에서든 대변검사만 제대로 하였으면 위와 같은 고생과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었으리라. 이 사람은 수일간의 구충제복용으로 설사가 치료되었고 곧 체중도 불어나 건강한 몸으로 퇴원하였다.이와 같은 일은 '그것'을 더럽게 여기고 그 검사를 기피하려는 경향과 나아가 기생충감염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가 빚어낸 참사(?)라 생각되며 앞으로도 얼마든지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위의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지만, '우리나라 장내기생충 집단관리(1970년~1995년)'는 국가에서 단국 개국이래 처음으로 기생충과의 전쟁을 선포한 자랑스런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 대장정(大長征)도 초 · 중 · 고등학교에 다니는 600만 명 학생의 집단검변(1년에 2회 하였으므로 1년에 1,200만 명이 수검)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충란양성자에게는 구충제를 투여하여 오늘날 같은 수준으로 기생충감염을 퇴치하게 된 것이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모범적인 퇴치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더러운 '그것'을 일년에 1,200만 건이나 검사해 낸 한국건강관리협회 직원들의 정성과 인내가 있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들고 온 학생들의 협조, 모으고 정리한 선생님들의 노고가 큰 기여가 되었음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학문적으로 필자 등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기록되는 장흡충류를 약 20종이나 발견하였고, 이 중 수삼종은 세계적으로 처음 알려지는 신종으로 인정받았으며, 더욱이 이들 장흡충류의 대부분이 인체기생충들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임상적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함은 물론 기생충감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당위성을 웅변으로 말해 주는 사안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장흡충류의 발견이 수많은 감연자와 환자가 배출한 대변의 전량을 조사하여 1mm 이하의 작은 기생충까지 찾아낸 끈질긴 작업의 결과임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보려고 하는 만큼 보이고, 찾으려하는 만큼 찾아진다'는 평범한 학문탐구의 진리를 터득할 수 있었고, '그것'이 오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생충과 새로운 지식을 공급하는 '보물'임을 깨닫게 만들었다.